



SOGANG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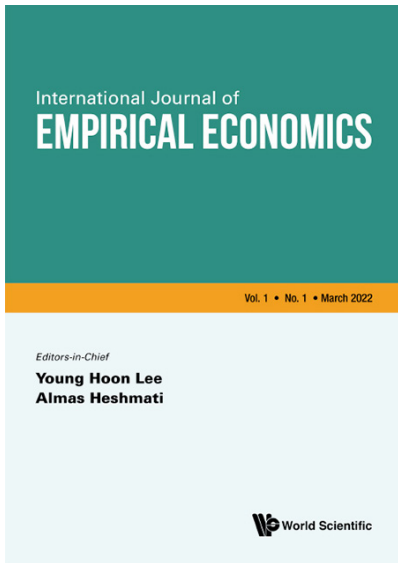
NEWSLETTER

FALL 2021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발행인: 광노선 | 편집인: 정국모 | 편집진: 이상진(총괄), 전덕희(행정팀), 문희주 | http://econ.sogang.ac.kr

FOCUS NEWS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mpirical Economics 발간



< International Journal of Empirical Economics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에서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mpirical Economics (IJEE)를 2022년 3월 창간한다. 국제적인 출판사 World Scientific Publishing과의 최종 계약으로 발간되는 본 학술지는 한 해에 네 번씩 발행되는 계간지로서 국·내외 경제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실증·이론 논문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특별호(Special issues) 발간을 통해 기존의 논문 수록 범위를 더욱 넓혀 새롭고, 독창적인 연구논문을 소개할 예정이다. 경제학 전분야에 걸친 실증·이론 연구성과를 소개함으로써 경제학 연구의 질적 심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학술지로 거듭나고자 한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지 발간 사업을 위해 경제 81학번 김길수 동문(싱가폴개발은행 한국지사 대표, OLP22기 회장)께서 학술지 발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셨다.

경제학부, (주)에프앤가이드와 금융 AI 업무협약 체결



지난 9월 27일 (월) 남덕우 경제관에서 본교 경제학부와 (주)

에프앤가이드가 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개발 및 AI 금융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광노선 경제학부 학장, 이강오 학생문화처장, AI 금융랩의 정재식 교수와 (주)에프앤가이드의 이철순 대표이사, 디지털혁신본부 서원우 전무, 유주현 팀장이 참석하였다. (주)에프앤가이드는 금융 및 기업정보와 관련한 데이터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금융시장의 로보어드바이저 구축을 위한 연구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광노선 경제학부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AI 모형이 어떻게 금융시장에 접목되는지를 배움으로써 사회진출 이후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대학원, ESG 경제 전공 2022학년도 전기 첫 신입생 모집

본교 경제대학원(야간, 특수대학원)은 일반경제, 부동산경제, 인공지능경제 등 기존 전공에 더해 국내 최초로 ESG 경제 전공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2022년 1학기 신입생을 선발한다. 국내 최초로 개설되는 ESG 경제 전공 과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ESG 경제 전문가를 양성하여 배출함으로써 해당 지식을 필요로 하는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지적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사회적 요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교 경제대학원 ESG 경제 전공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기초적인 경제 분석 기법에 대한

교과과정이며, 두 번째는 환경(E) · 기업의 사회적 책임(S) · 기업 지배구조(G)가 각각 기업경영 · 금융 · 경제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학습하는 각론 교과과정이며, 셋째는 평가기관 사이의 평가 방법상의 차이점 학습과 ESG 관련 기준 동향 등을 소개하는 과정이다. 강사진은 본교 경제학부 교수들 및 외부 ESG 전달 기관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2021년 11월 1일~10일(1차), 2021년 12월 1일~9일(2차)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교 경제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 AI금융전공 신설, 2022학년도 전기 첫 신입생 모집

경제학과 일반대학원은 기존의 경제학전공에 더하여 국내 경제학과 중 최초로 AI금융전공(석사과정)을 신설하고 2022년 1학기 신입생을 선발한다. AI금융전공의 교육목표는 전통적인 경제학 방법론과 AI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금융시장 관련 주제를 분석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있다. AI 방법론에 대한 기능적, 기술적 분석 능력을 함양하는 공학적 마인드의 프로그램 또는 학위과정은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금융분야에 특화하여 금융 분야 Domain Knowledge를 바탕으로 AI 방법론을 접목하는 프로그램

은 아직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AI금융전공 프로그램은 금융경제학의 여러 측면을 기초로 AI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교육하여 금융업계의 선두주자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서접수기간 및 입시전형의 자세한 내용은 경제학과 및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노선 교수, 평산 연구우수교수 선정



〈곽노선 교수〉

곽노선 교수가 2021년 평산 연구우수교수로 선정되었다. 평산 연구우수교수 수상은 평산 신동수 회장이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논문 실적을 고려하여, 매년 1명의 연구업적 우수교수를 펠로우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펠로우는 매년 1,000만원씩 2년간 연구 장려금이 지급된다. 곽노

선 교수는 1986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 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Texas A&M University와 동국대를 거쳐 2003년부터 본교에 재직 중에 있다. 곽노선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이며 최근 3년간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Economic Modelling, Economics Letter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등 다수의 우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진원 교수,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Economics Association Conference』 Best Overall Paper Prize 수상



〈김진원 교수〉

김진원 교수가 지난 6월 23-26일 로마에서 열린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Economics Association 연례학회에서 Best Overall Paper Prize를 수상하였다. 김진원 교수는 “Congestion Costs and

Scheduling Preferences of Car Commuters in California: Estimates Using Big Data”라는 논문을 통해 Google Map을 이용한 교통 혼잡 비용과 통근자들의 시간대 선택과 관련된 선호 체계를 추정하였다. 한편, 이번 연례 학회는 Covid-19의 영향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김길수 동문 (경제 81)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 김길수 동문 (경제 81) 〉

현재 싱가포르개발은행(DBS) 한국지사 대표로 있는 김길수 동문께서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에서 새로이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mpirical Economics 발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 김길수 동문

은 2006년부터 DBS은행 서울지점 기업금융 업무를 맡아 왔으며 기부금은 국제학술지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서강 경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 A Fresh Look at Current Issues on Applied Microeconomics mini-workshop 개최

지난 6월 24일 (목) 경제학과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A Fresh Look at Current Issues on Applied Microeconomics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응용미시경제학의 최신 연구동향과 연구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진행 순서는 노운재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The Effects of Teacher Performance Measures on Student Achievement” 논문 발표를 시작으로, 박지원 박사(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Competi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Evidence from the Great Recession” 논문 발표가 이어졌고, 마지막 순서로 권은지 교수(University of Cincinnati)의 “Why Do Improvements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Reduce the Gender Gap in South Korea?” 논문 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번 워크샵에는 응용미시경제학에 관심 있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최신 연구방법론을 접하고 연구동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정 교수, International Macro/Finance and Sovereign Debt Workshop 개최



International Macro/Finance and Sovereign Debt Workshop is a virtual workshop for a group of scholars to discuss cutting-edge research on the topics of international macro/finance and sovereign debt.

The second workshop, hosted by Sogang University, Korea, and supported by University of Surrey, U.K., will be on October 28-29 (Asian time), 2021.

If you would like to attend, please register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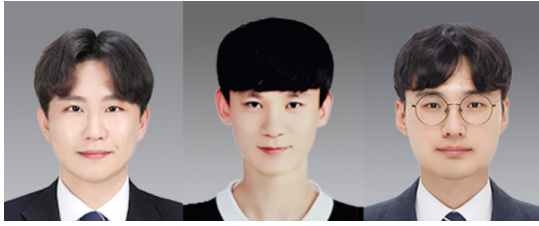
김윤정 교수가 International Macro/Finance and Sovereign Debt Workshop를 개최하였다. 워크샵은 2021년 10월 28-29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칠레, 멕시코의 국제금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50명 가량 참석하여 국제금융과 국가부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본 워크샵은 국제금융분야 연구 학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샵으로, 작년 11월 첫 번째 워크샵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1년에 한번씩 개최될 예정이며 두 번의 워크샵 모두 서강대에서 조직하였다.

해외대학교 소속 교수 및 연구원, 공동연구차 본교 방문

지난 7-9월 기간 동안, 해외대학 소속 교수 및 연구원들이 본교 경제학과에 방문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양현주 교수의 초청으로 개발경제학 전공인 박상운 교수(University of Hong Kong), 허정 교수의 초청으로 국제무역 전공인 이수영 교

수(Hobart and William Smith College), 이성원 교수의 초청으로 마케팅 전공인 노준형 박사(Uber Freight), 계량경제학 전공인 한석진 교수(University of Bristol), 국제무역 전공인 윤혜연 박사(University of Bristol)가 본교에 방문하였다.

2021 예금보험공사 우수논문 공모전 우수상 수상



〈 장정호 학생, 최승진 학생, 홍승기 학생 〉

지난 10월 8일(금) 본교 경제학과 재학생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주최하는 「2021년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장정호, 최승진, 홍승기(경제 16)학생 팀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의 거래 확대가 금융 안정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본 논문은 금융 안정을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의 안정으로 세분하였으며, 실증 분석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시장 영향력 감소와 시장 변동성 상승 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공모전은 올해 3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금융안전망 강화 및 예보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18편의 논문 중 6편(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상 3편)을 최종 선정하여 지난 10월 8일(금)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상장 및 상금을 시상하였다.

202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토론탈회 금상 수상



〈 이태규 학생 (우측)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 5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탈회에서 경제학부 21학번 새내기 이태규 학생이 결선까지 올라 최종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태규 학생은 ‘블랙스완’이라는 팀명(1인)으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에서 34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16개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16강전 이후는 1:1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16강전, 8강전, 4강전을 통과한 후 최종 결선까지 진출하였다. 최종 결선에서는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여부를 주제로 고려대 ‘너울’팀 (3인)과 승부를 가린 끝에 준우승을 차지하여 금상을 수상하였다.

2021년도 공인회계사, 경제학 전공자 13명 합격

2021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본교 경제학 전공자(1 전공) 13명이 최종합격하였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정은(경제 16), 권우현(경제 14), 김민수(경제 12), 김상영(경제 15), 김재안(경제 16), 김준희(경제 15), 박규호(경제 15), 박지수(경제 15), 이진우(경제 13), 정경훈(경제 10), 정슬기(경제 12), 조인수(경제 15), 최민경(경제 12).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총 3,595명이 응시해 1,172명이 최종합격하였으며, 본교는 이 가운데 7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서강경제 가족을 찾아서: 김재진(경제 7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강경제 가족들에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일원이 되니 어느덧 25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에 파견되어 근무하기도 했고, 연구원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국가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과 많은 분들의 지지가 바탕이 되어 부원장직을 거쳐 현재 원장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연구원이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 그리고 내년이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그동안 걸어온 만큼 미래에도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항상 고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하 조세연) 최초로 원내 연구진으로 정년을 마치신 뒤 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4년간 조세연의 일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조세연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당시만 해도 조세연은 출범하기 전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시절에도 주위에는 조세를 공부하는 한

국 유학생이 드물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도 조세에 관해 연구하는 경제학자도 거의 없었고, 관련 연구기관도 1992년에 개원한 조세연이 유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연은 저의 전공을 살리고, '국가의 조세 및 재정 정책 수립'이라는 중요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뿐인 국책연구기관이었습니다. 저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조세팀장으로서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를 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수증복권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현금영수증제도, 사업용계좌제도 등 국·내외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제도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30년 동안 조세·재정 제도 정착을 위해 조세연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처럼, 앞으로 30년 동안에도 국민·국가·산업에 이바지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튼튼한 밑바탕을 만들고 퇴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pandemic)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사회적·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세입 및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차례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야 하지만, 재정지출을 축소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감소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입을 확대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국가적 과제인 소득 및 재산의 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잠재력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조세연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명견만리의 연구를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제를 바꾸어 원장님의 학창 시절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창 시절 '서강대생 김재진'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저는 장래희망을 쓸 때 항상 외교관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법대를 나오신 아버지께서는 제가 법관이 되

길 바라셨습니다. 대학교 입학 원서를 쓰기 전까지 아버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 타협점으로 경제학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일단 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외교학과로 전과하여 외교관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제학을 배우면서 그 매력에 빠져들어 열심히 공부만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 들고 학교에 가 늦게까지 로올라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덕분에 ROTC 생활을 하면서도 성적이 우수해 총장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학교생활과 군 복무를 모두 마치고 1년간의 직장생활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미국 유학 시절, 부가가치세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다양한 경제학 전공 가운데 조세·재정 등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 교수님께서 그 당시 조세연구 전문가였고, 또한 조세에 관해 연구해 보는 것을 권유하셔서 세부 전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조세 관련 연구자가 많지 않고, 조세정책 연구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전공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는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전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여 제안한 제도나 정책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파급력이 있으며 동시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에서 보람과 동시에 부담이 많은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한 가장 어려웠던 일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석사급 연구원과 행정원 일부 직원들이 기관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기관장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언을 하기도 하고 타협방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저를 회유하거나 협박을 하였고, 온갖 방법으로 탄압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서 안식년 권유를 받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와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꿋꿋이 버텼습니다. 이러한 인고의 시간은 추후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시 저와 함께 고통에 동참했던 여

러 직원들은 이후 지금까지도 저의 든든한 동료이자 지원군이 되어 주었고, 현재 원장 자리에 오르기까지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신념을 가지고 정도를 꾸준히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주위나 사회에서 이해하는 날이 오고 나 스스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소중한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어려울 지라도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향한 선하고 정의로운 행동이 이끌어낸 결실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갈 서강대 학생들이 리더로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학창 시절을 보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건학이념에 따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 정의를 위해 본인을 희생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서강대의 이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닥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서강대에서 배운 정의로움과 진리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마침내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여라”라는 서강대의 슬로건처럼 서강대에 대한 자부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학창 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강칼럼 I : 공직의 꿈을 품고 공부하는 이들에게



(2020년도 행정고시 재경
직렬 합격자 양지연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재경직에 합격한 경제학부 양지연이라고 합니다. 모범적인 수험생활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 합격수기를 작성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수험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쳤던 공부방식이나 마음

가짐을 공유하여 이 글을 읽는 학우 분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년 반 정도의 수험생활을 겪으며 멘탈 관리나 공부하는데 있어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수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수험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수험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 생각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피셋 점수가 늘지 않고 답안의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때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공부를 계속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점수나 실력이 계단식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다보면 꼭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은 시험 당일에도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초시, 재시 때는 붙을 수 있을까 의심했던 것과는 달리 합격하던 해에는 나는 붙을 수 있고 올해 떨어지더라도 내년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시험을 치렀습니다. 물론 1년씩 지나면서 실력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작년에는 이전과는 달리 풀 수 있는데도 못 푼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자신 있는 과목에서는 문제를 신중하게 읽게 되어 조건을 놓치거나 논점을 빠뜨리는 것을 줄여주었고, 자신 없는 과목이더라도 좀 더 과감한 서술을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공부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부 내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학원가나 수험생들 사이에서 자신 있는 과목을 소위 전략과목이라고 하여 그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저는 수험 초기에 이러한 전략과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경제학을 전략과목으로 세우고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졌던 행정법, 행정학 과목을 방어과목으로 하여 방어과목은 최

소한으로 공부하고 전략과목의 경우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 지나치게 꼼꼼하게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를 때는 어려운 문제를 혼자 맞히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생소한 주제가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전과목 모두 큰 흐름을 따라가며 중요한 내용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응용이 가능할 정도로 익혀 둔 후 자신 있는 과목의 공부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시 공부는 장기전이기에 때문에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부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목표량을 정하고 각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짧은 편이고 금방 지쳐버려서 집중 가능한 시간을 잘 활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경제학의 경우 강의 듣는 동안에는 설명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떠올려보려 노력했고 강의가 끝난 뒤에는 10분정도씩 어려웠던 내용을 백지에 서술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루에 복수의 과목을 공부할 때는 가장 어려운 과목을 먼저 공부해 에너지를 분배하려 했습니다. 또한 어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이에 매몰되어서 자책하기보다는 다시 오늘의 공부를 해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오롯이 공부 시간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셋째, 스터디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수험생활 동안 가장 후회되는 부분은 스터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의 경우 수험 초기에 행정법, 행정학 과목을 어려워했는데 암기가 될 되어 있어 답안 작성이 힘들다는 핑계로 첫 2차 시험을 100점 분량의 답안을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고 응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저의 수험기간을 늘린 가장 큰 패착이었고 두 번째 2차 시험을 치를 때도 수험기간이 2년이 넘었음에도 기본 실력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 보니 몇 년을 공부하던 시험장에 들어갈 때 완벽하게 암기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틀린 말을 쓰더라도 어렵פות이 떠오르는 내용을 통해 과감하게 시간 내에 답안을 어느 정도 완성시켜 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스터디 참여는 이런 연습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다른 스터디원들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압축적으로 서술하는지 참고

할 수 있어 책을 찾아보고 해답을 찾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스터디 없이 합격하신 분들도 분명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한 답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답안 작성이 어렵다면 더더욱 스터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사항이지만, 운동이나 식사, 청소와 같이 매일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들에 한번 꼴로 밥을 직접 해먹었는데 하루하루를 버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시 생활을 즐긴다는 것이 어찌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시생이라고 해서 꼭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욕구들을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지만 반대로 보면 제약이 많은 생활이기 때문에 맛있는 밥 한 끼나 재밌는 영화 등 일상생활에서의 행복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수험생 분들이 스스로에게 위로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수험생활 끝에 모두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칼럼 II: 유학을 준비하는 경제학도에게



〈뉴욕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김재연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부 과정에 2012년도에 입학 후 2020년 여름 경제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한 김재연입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서강대 생활 끝에, 이번 가을 미국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이후 경제학과 교수님들,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친구들로부터 감사하게도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만큼 유학을 준비하는 후배님들로부터 유학 준비와 관련해 많은 질문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질 짧은 글을 통해 유학을 준비하면서 제가 겪었던 고민과 준비들을 후배님들께 공유함으로써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 합니다.

9년의 시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가장 고민이 많았던 시기는 경제학 박사라는 진로를 선택하기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학부 6학기가 끝날 무렵 유학이라는 진로를 결정하기 전까지, 저에게 유학은 수많은 진로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CPA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다가, 그 다음날은 증권사 취업을 하고 싶었고, 어느 날은 개발자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변하는 진로 설정에 친구들이랑 술도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진로를 하나로 고정하지 못하고 '유학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 학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자', '무엇이든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학부 저년차 생활을 했습니다. 경영학술 동아리에서 마케팅/전략 공부도 해보고, 친구들과 챗봇을 만들며 코딩 공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 머신러닝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숫자를 분석해 기업 및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전성훈 교수님의 산업조직론 수업을 듣고 산업조직론을 전공해 숫자로 기업의 가격, 품질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유학이라는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 저년차의 후배님들께, 학교 과목 수강과 학점에 연연하기 보다는 강의실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든지 가장 힘든 것은 끊임없이

이 스스로를 동기부여 해가며 정해진 것이 많지 않은 길을 완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갖게 된 동기만큼이나 나를 잘 지켜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 밖에서 가능하면 많은 것을 경험한 이후에 유학을 비롯한 여느 진로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을 가겠다는 결심을 내린 이후부터 석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유학을 위한 주된 준비는 경제학 연구였습니다. 저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통해 7학기부터 전현배 교수님, 주하연 교수님께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학부생 때부터 전현배 교수님의 빅데이터 리딩 그룹에 참여해 교수님들, 박사과정 선배님들과 이야기 하는 것에서 연구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말 많은 시간을 두 분 지도교수님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에어비앤비 관련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바르셀로나 GSE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경제학 연구자 분들과 어울려 뒷풀이를 하는 경험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후배님들께 연구 경험을 많이 갖기를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현상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를 다른 연구자와 공유하고 또 다시 그들로부터 배우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해 봄으로써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유학 지원 시에 연구 경험을 토대로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수님들을 찾아가 대화를 하여 경제학적인 시각을 배우고, 주간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자신을 연구 경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지난 서강대에서 9년은 치열한 고민 끝에 즐겁게 꿈을 꿀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들, 그리고 먼저 유학을 가신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저의 이아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꿈을 쫓을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동정

● 이윤수 교수, 경제학과 신입 학과장 임명



〈이윤수 교수〉

2021년 2학기부터 이윤수 교수가 경제학과 학과장에 임명되어 학과의 발전을 이끌게 되었다. 지난 1년간 학과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주신 전현배 교수(전 학과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박정수 교수,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선임



〈박정수 교수〉

박정수 교수가 2021년 6월에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에 임명되었다. 한국금융학회는 화폐·금융·증권 및 금융기관 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정책분야의 현안과제들을 토론함으로써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지

난 1989년 6월에 창립되었으며 현재 금융관련 경제 및 경영학자 900여명의 개인회원과 100여개의 금융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연구 및 금융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영훈 교수,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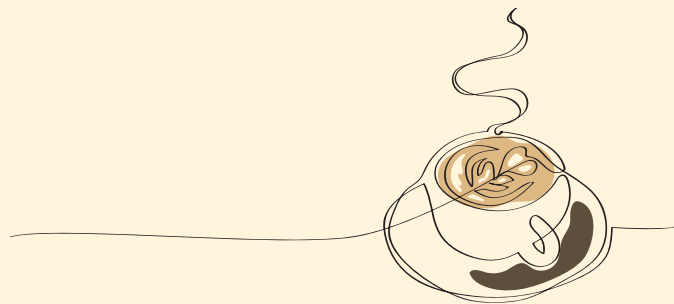
〈이영훈 교수〉

이영훈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 과제는 “K-스포츠 비즈니스모형 구축을 위한 경제학 연구”로 총 연구기간은 5년이다. 정학적(static) 분석에 머물렀던 스포츠경제

학 문헌에 동학적(dynamic)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수요의 동학적 변동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학문발전에 기여를 할 계획이다.

● 연구년 소식

이영훈 교수는 2021년 1학기부터 6개월간 연구학기를 가진 후 이번 학기부터 강의를 재개하였다. 한편, 최인, 허정 교수는 2021년 2학기부터 6개월간 연구학기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 2월 복귀할 예정이다. 정재식 교수는 2021년 2학기부터 1년간 연구년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 8월 복귀할 예정이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소식

● 경제학부 정기세미나

2021년 1학기에 이어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통해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최근 경제학의 연구동향을 배우고 토론하는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요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으며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웹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Department of Economics Seminar Schedule Spring 2021]

유중민(3월 4일)

홍익대학교

Linking an Emissions Trading Scheme with a Renewable Credits Market in Korea

한요셉(3월 9일)

KDI

Delayed Retirement and Youth Employment: Evidence from Korean Administrative Data

한석진(3월 16일)

University of Bristol

Shapes as Product Differentiation: Neural Network Embedding in the Analysis of Markets for Fonts

고강혁(3월 23일)

고려대학교

The Effects of Price Competition on Firms' Operations and Market Price: Evidence from A Retail Gasoline Market

Lawrence Jin(3월 30일)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Using Incentives to Form Physical Activity Habits

이연준(4월 6일)

FRB at Richmond

Financial Intermediaries and Agency Problems With and Without

Vertical Incentives

정한말(4월 13일)

The Ohio State University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a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for flow variables

박진성(4월 15일)

동아대학교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Working from Home during the Pandemic

Gönül Dogan Ligtvoet(4월 22일)

University of Cologne, C-SEB

Pyramid Schemes

허준영(4월 27일)

서강대학교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the New Fiscal Rule of Korea?

Doruk Iris(5월 4일)

서강대학교

Representation, Peer Pressure, and Punishment in a Public Goods Game Experiment

김찬우(5월 18일)

한국은행

Markup, Customer Base, and Firm Dynamics

주형석(5월 20일)

University of Surrey

Fiscal Austerity and Sovereign Debt Relief

Po-Chun Huang(5월 25일)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Employment Effects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Tax Base

김두수(6월 1일)

Ryerson University

Efficient Semiparametric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of
Quantile Treatment Effect

Wolfgang Buchholz(6월 3일)

Regensburg University

Improving Public Good Supply and Income Equality: Facing a
Trade-Off

Tzu-Ting Yang(6월 10일)

Academia Sinica

The Effect of Financial Resources on Fertility: Evidence from
Lottery Winners in Taiwan

최재림(6월 15일)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Tariffs, Agricultural Subsidies, and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Unintended Consequences

김대순(7월 6일)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Sources of State-Dependence in Brand Choices: Learning vs
Switching Costs

이수영(7월 20일)

Hobart and William Smith Colleges

The Great Trade Collapse and Intrafirm Trade

박동현(8월 10일)

Asian Development Bank

Asia's economic outlook, and financing a green and inclusive
recovery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학술지 『시장경제연구』

제 50집 2호, 제 50집 3호 발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정기발행 학술지인 『시장경제연구』 제 50집 2호를 2021년 6월에, 제 50집 3호를 2021년 10월에 발간하였다. 이번 학술지에는 다음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시장경제연구』 제 50집 2호

1. 외국인 투자자 기반 집중도가 주식 자본 이동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임태훈(한국외국어대학교)

2. Inequality and Growth in the Information Age: Evidence from China

- Hojin Jung(전북대학교), Changkyu Choi(명지대학교), Li Su(중국인민대학)

3. 케이블TV에서 IPTV로의 수요 전환에 대한 실증 분석

- 신일순(인하대학교)

4. 금융서비스 무역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중국의 금융시장개방을 중심으로

- 김용민(대구은행), 최보영(경북대학교)

『시장경제연구』 제 50집 3호

1. 청년 취업 스펙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 김혜영(인천대학교), 이진형(성균관대학교)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환율과 주가 지수간의 선후행 관계 분석

- 안영빈(부산대학교)

3. 정부부채 수준에 따른 정부지출증수 추정: OECD 국가패널 및 교차패널자기회귀모형(IPVAR)을 이용하여

- 김원기(성신여자대학교)

4. 아파트 증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 김영민(강원대학교)

경제학부 단신

마리오-엠백용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가. 일시 : 2021년 5월 27일 (목)
 나. 선발인원 : 10명
 다. 장학금액 : 1,000만원 (1인당 학업지원비 100만원씩)
 라. 선발방법 : 학과장 면접 (가정형편 및 성적)

2021학년도 1학기 Honors Program 선발

- 가. 목적 :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이론경제학 분야와 재무경제학 분야의 심화 과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서강 경제의 교육 수월성 제고.
 나. 선정 기준
 - 4학기 ~ 6학기
 - CGPA 3.3 이상
 -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의 Honors class 분반 한 과목 이상 이수자
 다. 선정 결과 :
 - 금학기 : 이론경제학 3명, 재무경제학 2명

경제학부 성적 우수학생 Dean's List 선발

- 가.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성적(CGPA) 3.7 이상 학생
 나. 선발인원 : 45명(학기별 등록생의 5% 내외)
 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증서와 상품(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

경제학부 동문회 장학생 선발

- 가. 장학생 선발 기준
 - Dean's List에 선발된 직전학기 3학기~7학기생 중 각 학기 별 성적 상위 2명씩(금학기 휴학생 제외)
 나. 선발 인원 : 10명
 다. 장학금 : 총 1,000만원(1인당 학업지원비 100만원씩)
 라. 장학금 기부자 : 김상수 동문(81 경제)

2021학년도 순득장학재단 제18기 장학생 선발

- 순득장학재단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장학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2021년도 처음으로 우리 학교에 장학생 선발 기회를 주었다.
 가. 장학생 : 송정길 (경제학과 16학번)
 나. 장학금 : 400만원
 다. 장학증서는 학장님께서 직접 전달

2021학년도 새내기 학부모 간담회 (온라인) 개최

- 가. 일시 : 2021년 5월 26일 (수) 19:30~20:30
 나. 참석 : 약 30명

2021학년도 경제학부 학생을 위한 취업 진로 온라인 특강 (3회)

일시	주제	강사	참석
5.27(목) 19:00	경제학 전공 학생의 취업 준비	취업팀 직원	약 240명
6.22(화) 17:00	해외 유학 준비	박사과정 학생	약 40명
8.2(월) 20:00	한국은행 입사 준비	한국은행 재직 동문	약 100명

서강 맨하튼 진행 (금융공기업 선배와의 대화)

재학생의 취업 진로지도를 위해 경영학부 및 취업지원팀과 협력하여 우리 경제학부 등을 졸업한 일부 금융공기업 재직 동문들을 초청, 2021년 11월 중 6회에 걸쳐서 재학생들과의 토크쇼를 진행함.



경제대학원 소식

경제대학원 제57기 학위수여식 개최

가. 일시 : 2021년 8월

나. 학위수여자 : 총 37명

전공	인원
경제이론	2
공공경제	4
국제경제	4
금융경제	13
부동산경제	13
정보·기술경제전공	1
합계	37

2021학년도 후기 (62기) 신입생 입학식&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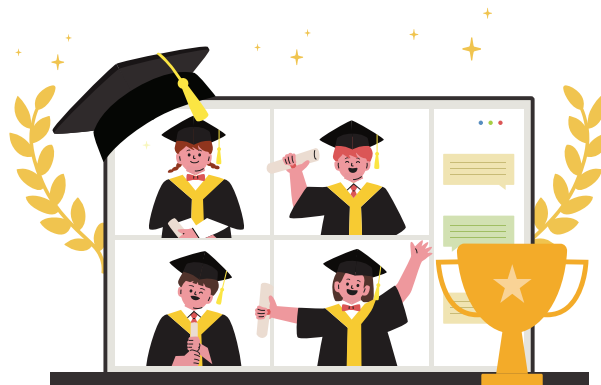
가. 일시 : 2021년 8월 21일 (토) 10:00~12:00

나. 장소 :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진행(ZOOM)

다. 참석대상 : 경제대학원 원장, 부원장, 주임교수 4명 /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

●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현황

등록자(입학자)	1차전형	2차전형	계
2021년 전기	42	28	70
2021년 후기	35	20	55



2022학년도 전기 학생모집

가. 모집과정 및 인원

모집과정	전공분야	모집인원
「경제학석사」 학위과정	*5학기: 일반경제학 - 공공의회 · 노동경제, 국제경제, 금융경제 *4학기: 인공지능경제전공 *4학기: 부동산경제전공 *4학기: ESG경제전공	00명

※ 일반경제의 세부전공은 입학 후 3학기에 신청

※ 일반경제, 인공지능경제, 부동산경제, ESG경제 전공 간에는 원서접수 후 전공 이동 불가

나. 지원자격 :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2022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라. 전형일정

구분	일반 1차 전형 (위탁전형과정 포함)	일반 2차 전형 (편입학과정 포함)	비고
원서접수	2021.11.01.(월) ~ 2021.11.10.(수)	2021.12.01.(수) ~ 2021.12.09.(목)	인터넷만으로 24시간 접수 [※ 전형료: 80,000원] 접수사이트 : 진학사 (www.jinhak.com)
서류제출	2021.11.11.(목) 17:00 까지	2021.12.10.(금) 17:00 까지	제출서류 : 입학원서, 출신대학졸업(예정)증명서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재직자인 경우) 제출처 : 경제대학원 우편 및 방문접수
전형일시	2021.11.19.(금) 18:30 부터	2021.12.17.(금) 18:30 부터	면접 전형 전 ZOOM 접속 주소통지, 수험생 개별 문자 (SMS 서비스)로 통지 예정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대면 가능)
합격자발표	2021.11.26.(금) 15:00	2021.12.24.(금) 15:00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홈페이지 http://econ.sogang.ac.kr
등록금 납부	2022.01월초 예정		상세 납부 일정 추후 공지 예정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 합격 취소됨)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22.02.26.(토) 예정		진행 방법 혹은 행사 장소 등은 추후 공지 예정 (교과 과정의 일부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본 전형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프로그램 전형과 별개임.

경제대학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 연기되었던 경제대학원 30주년 기념행사가 올해 12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 일시 : 2021년 12월 10일 (금) 18:30 ~ 20:30

나. 장소 : 교내 곤자가 컨벤션홀

다. 참석 대상 : 교수진, 동문, 재학생, OLP 회장단 등 (총 110명 이상 참석 예상)

라. 행사 개요 :

- 서강 경제대학원 30주년 경과보고
- 축사 (대학원장, 총동문회장, 총원우회장, 총장 등)
- 30주년 공로상 시상
- 2021년 서강경제 대상 시상 및 식사

* 주최 : 서강 경제대학원 총동문회

* 후원 : 경제대학원 및 원우회

Opinion Leaders Program 소식

OLP 과정 소개

OLP 과정은 서강대 경제대학원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개발한 국내 최고의 경제, 경영 과정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공/사기업체의 임원 및 간부, 고위 공무원, 법관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이 아닌 현실 이슈를 주제로 하되 원리의 이해 및 적용을 중요시하는 강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OLC 동정

OLC(Opinion Leaders Club)는 Opinion Leader Program을 이수한 1,000여명의 모임으로 주기적인 모임과 토론, OLP Journal발간, 답사여행 등 활발한 네트워크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 2021년 10월 20일 OLC 이사회 개최

- 차기 임원선출 [회장 : 손영득, 수석부회장 : 허인구, 사무총장 : 민원표, 사무차장 : 정은주 등]

* 2021년 12월 2일 OLC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예정)

- 차기 회장 및 임원 인준 예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OLP 과정 개강 연기

지난 8월 개강 예정이었던 OLP 과정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강을 연기하였다. 이번 OLP 24기 과정은 8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9월과 10월에 부부동반 특강 및 1박2일 합숙 세미나가 준비되었으며 12월 수료식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운영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추후 일정은 OLP 웹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소식

서강의 새로운 출발, '서강 비전 2030' 선포식 개최

'서강 비전 2030' 선포식이 지난 6월 22일 오후 5시 이나시오 강당에서 열렸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교내 구성원 위주의 소규모 행사로 개최되었다. 심중혁 총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4개월간, 각 분야의 동문, 저명인사 및 교내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간담회를 통해 학교의 발전 동력을 새로이 점검하고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선포식은 교내외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된 '서강 비전 2030'을 대내외로 공표함으로써, 서강대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결속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학협력, 연구중심 대학원, 국제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제2의 건학에 버금가는 개혁을 실시하며, 2030년까지 범학제간 융·복합 연구 국내대학 1위, 인문사회 2위, 자연공학 3위 및 산학협력 기술이전 1위 달성을 목표로 국제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최초 여성사외이사에 이인실(경제대학원) 교수 선임

이인실(경제대학원) 교수가 24일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화생명은 "상장 이래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인실 교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2019년에는 여성 최초로 한국경제학회 회장에 선임됐다.

동문동정

- 김재진 (경제 77)

김재진 (경제 77) 동문이 지난 27일 열린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4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동문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공평과세실현분과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조세팀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4년 5월까지 3년이다.

- 장연성 (경제 95)

장연성 (경제 95) 동문이 10월 15일 (주)한화 정기임원인사에서 지원부문 신규임원으로 선임됐다. 장 동문은 한화건설 금융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주)한화 지원부문에 합류해 상무를 역임했다.

- 장동택 (경제 89)

장동택 (경제 89) 동문이 10월 14일 신라젠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장 동문은 SK텔레콤과 SK E&S 등에서 재무기획, 글로벌 신규사업 개발, M&A 등을 담당했다. 비에스렌탈 경영지원부문장 (CFO)를 거쳐 지난 7월 신라젠에 합류하며 전략기획부문에서 한국거래소 대응업무를 비롯해 경영 전반을 책임져왔다.

- 손영식 (경제 81)

손영식 (경제 81) 동문이 10월 1일 신세계그룹의 2022년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신세계 대표에 내정됐다. 손 동문은 1987년 신세계백화점에 입사 후 MD2담당 잡화팀장, 신세계 백화점부문 MD3담당 상무, 신세계 상품본부장 부사장보, 신세계 패션본부장 부사장보 등을 지냈다. 2015년 신세계디에프 사업총괄 겸 영업담당 부사장을 거친 후 2016년 신세계디에프 대표에 올랐다.

- 김형준 (경제 85), 박종규 (경제 86)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인 김형준 (경제 85) 동문과 박종규 (경제 86) 동문이 나란히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으로 선임됐다. 김형준 신임 부행장은 수출입은행에선 해양금융단장과 서비스산업금융부장, 기업구조혁신실장 등을 역임했다. 향후 김 동문은 프로젝트금융본부를 맡아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을 지휘할 예정이다. 박종규 신임 부행장은 입행 후 경험총괄부장과 하노이 사무소장 등을 거쳤고, 이번 선임으로 경험사업본부를 맡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 차병주 (경제 85)

차병주 (경제 85) 동문이 7월 18일 금융결제원 신임 상무이사에 선임됐다. 차 동문은 금융결제원에서 결제연구팀장, 조사연구팀장, 전략기획팀장, 신사업개발실장, 금융결제연구소장, 전자금융부장, 금융정보업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 이종우 (경제 86)

이종우 (경제 86) 동문이 지난 7월5일 관세청 신임 차장으로 승진, 임명되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이 신임 차장은 대건고,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개발정책학)를 받았다. 행시 42회 (재경직)로 관직에 첫 발을 들인 이 동문은 본청 기획조정관, 인천 수출입통관국장, 본청 정보협력국장,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상수 동문 (경제 81), 경제학부 발전기금 및 연구역량 강화기금 2억원 기부



〈 김상수 동문 (경제 81) 〉

경제학과 81학번인 김상수 동문께서 2020년 경제학부 발전기금 및 연구역량강화기금 목적으로 2억원의 기부금을 기탁한 데 이어, 2021년 6월에도 2억원을 경제학부에 기부하였다. 김상수 동문은 수벨류(주)를 창업하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투자전문업을 통하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입지전적의 인물로서 서강 경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모교 서강대학교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현재까지 서강대학교에 65억원 이상의 놀랄만한 기부금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학부에서는 김상수 기금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기금은 향후 경제학부의 발전과 대학원생 및 교수들의 연구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수 동문 (경제 81),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싱가폴개발은행(DBS) 한국지사 대표로 있는 김길수 동문께서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발전기금에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 김길수 동문은 2006년부터 DBS은행 서울지점 기업금융 업무를 맡아 왔으며, 기탁된 기부금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mpirical Economics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발전기금 / 동문회 후원금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학부의 발전기금에 약정하시고 납입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경제학과와 발전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김길수 동문이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발전기금'에 1,000만원을, 김상수 동문이 '김상수 경제학과 연구기금'에 2억원을, 에스시아이평가정보(주)에서 '희성 기금'으로 850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탁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제학부, 경제대학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기부자 명단

(2021.03.01.~2021.08.31.)

학부	김길수, 김상수, 문용호, 유경윤, 정진화
교원	곽노선, 김종화
직원	송은경
대학원	이태현
서강의 벗	김준석, 에스시아이평가정보(주)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경제학부 발전기금을 보내주실 분께서는 경제학부 행정팀(02-705-8179) 또는 서강대학교 발전홍보팀(기금담당자, 02-705-8050)으로 연락 주시고, 경제학부 발전기금의 용도임을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GANG ECONOMICS